광산구 소유 '명품 산책로' 승마장이 막았다

송산승마스쿨 10년 전 기부채납, 사유지처럼 철문 설치
주민들 이용 엄두 못내고 발길 돌려…구, 행정조치 검토

'이곳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승마장 용무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승마장 입구.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늘어선 산책로 앞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은 커다란 철문이 세워져 있다. 철문 앞에는 매표소도 있어 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듯 보인다. 산책 삼아 이곳을 찾은 마을 주민들도 안내문을 보고 산책로에 들어설 엄두을 못 내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실제로 승마장은 300여m 떨어져 있으며, 승마장과 철문 사이 도로는 광주 광산구청 소유다.

승마장에서 10년여 동안 구 소유의 산책길을 사유지처럼 무단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광주시 광산구 지평동 송산승마스쿨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승마장에서 차단한 도로는 승마장 앞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심어진 300여m 구간이다. 현재 도로 입구에는 '사유지 무단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철문이 설치돼 있다.

이 도로는 최초 개인 땅이었으나, 지난 2012년 승마장 건설에 앞서 도로를 구에 기부채납하면서 소유권이 광산구로 넘어왔다.

광산구는 지난 10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가 승마장 측에서 철제 대문을 설치해 도로 입구를 막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서야 조사에 들어가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도로가 국유지인 만큼 개인이 임의로 통행을 차단하면 도로 불법 점용이 인정된다. 출입문 차단을 하려면 사유지인 승마장 입구에서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마장 관계자는 "지난달 6일에 단 한 번 출입문을 닫았다. 그마저도 기부채납이 이뤄진 2012년 이래 처음으로 닫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승마장 내 절도사건이 빈번해 보안 차원에서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승마장 관계자는 또 "출입문 너머에 다른 마을로 통하는 길이 연결돼 있어 도로 자체를 '전면 차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광산구는 승마장 측이 도로를 완전 차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도로에 시설물을 놓고(적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도로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승마장 입구에 '출입 금지' 안내판이 붙은 철문이 설치돼 있다. 철문 너머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심어진 산책로는 광산구 소유의 도로다.

광산구는 해당 차단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과거 5년만큼의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산승마스쿨은 지난 2013년 농림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설립됐다. 국고보조·지방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받아 '농어촌승마시설', '가축사육업' 업종으로 1975㎡(597평) 부지에 승마장을 건설, 2016년 5월 문을 열었다. 카페, 양떼목장 등을 포함한 전체 부지는 13만㎡(4만여평) 규모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예술인 발길에 '계림 카바레' 문턱 닳겠네

광주 동구, 유흥주점 등 유휴 공간 재생…시·공예·음악 등 '문화 놀이터' 운영

광주시 동구 계림동 유흥주점 건물에 '카바레'가 문을 연다. 이 카바레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장소이자 '춤바람'의 대명사인 그 곳이 아니다.

광주시 동구는 8일 오후 4시 계림동 559-5번지에서 '계림 카바레'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계림 카바레는 동구가 자체 예산(2000만원)으로 '유휴공간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업의 결과물이다.

계림1동 금수장호텔 일대에는 일명 '방석집'으로 불리는 총 13개의 유흥주점(11개 폐업)과, 문을 닫은 모텔들이 그대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발생 우려로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이에 동구는 2~3년전부터 폐업상태인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유흥주점 건물(1층 주택, 67.61㎡)을 5년간 무상임대 받아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폐업한 유흥업소 공간을 주민과 함께 만들고 마을과 상생하는 대안공간으로 변화시켜 유흥업소 일대의 상권 변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공모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이곳의 이름을 '계림 카바레'로 지었다. 퇴폐적인 이미지의 '카바레'가 아닌 태생적 의미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카바레'(Cabaret·포도주 창고, 선술집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기원은 1881년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에 생긴 '검은 고양이'(르 샤 누아·Le Chat Noir)로 보는 것이 대체적이다.

카바레는 보헤미안들의 성지였으며, 유명 예술인들의 아지트 구실을 했다. 매주 문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시와 소설 등 작품을 선보이고 노래, 1인극 등의 공연을 하며 동시대 문학과 정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총체적 문화예술공간이었다.

동구는 유럽 예술인들의 실험적인 대안공간이었던 '카바레'의 이름을 빌려 문화예술적 에너지를 이곳에서 다시 만들어 내기로 했다.

시, 문학 퍼포먼스, 공예, 음악 등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이들이 서로 만들어가며,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실험적 놀이터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수요색소폰' 모임이 됐다.

계림 카바레를 운영하는 이영미(주)집합도시 대표는 "이제 '유리방'이 아닌 계림 카바레 유리창 너머 새어 나오는 문화예술의 불빛으로 불이 꺼져 오가는 사람 없는 골목길을 비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유흥주점이 최근 문화예술인들의 거점으로 활용될 '계림 카바레'로 탈바꿈했다. 〈(주)집합도시 제공〉

시교육청 파격 인사 눈길

광주시교육청이 파격인사로 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시교육청은 7일 5급 이상 공무원 29명에 대한 인사를 8일 자로 단행했다.

5급 전보에서 오근배 시설기획 담당이 교육시설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나 눈길을 끌었다. 교육행정직인 오 사무관이 교육시설과장을 맡은 것은 1986년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학교 신·증축 등을 비롯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요직이다. 교육시설과장은 줄곧 기술직이 맡아왔다.

인사배경으로는 기술직 일변도의 교육시설과에 변화와 쇄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이정선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은남 신임 총무과장은 교육청 개청 후 세 번째 여성 총무과장에 이름을 올렸다.정 과장은 노조 업무를 담당한 그간 노고와 깔끔한 일처리 능력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안형관 비서실장, 최철형 인사담당, 윤광민 예산1담당, 조영우 학교시설지원단 시설지원 3과장 등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5급 4명 모두 요직을 꿰찼다.

한편, 현경식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가 3급으로 승진해 정식으로 관장을 맡고, 정영미 총무과 인사 담당이 4급으로 승진해 교육협력관에 보임됐다. 김정연 교육협력관이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으로, 김용일 재정복지과장이 노동정책과장으로, 노정환 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이 안전총괄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각각 옮겼다. 양규현 안전총괄과장이 교육자치과장에, 임창호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이 재정복지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마른 장마에 댐 '갈증'

주암댐 '주의' 단계

광주·전남에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수량 부족으로 댐이 말라가고 있다.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8일 순천에 있는 주암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르면 다목적댐 가뭄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주암댐은 섬진강수계의 다목적댐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해마다 4억8880t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에 따르면 7일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24%로, 저수량은 주암댐과 주암조절지댐을 합쳐 1억7060만t까지 떨어졌다. 댐이 정상 운영되는 '정상 회복선'에 다다르려면 8일 기준 2억4300만t의 저수량이 필요하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올해 주암댐 유역 강수량이 예년 대비 49% 수준인 307mm에 그치면서 저수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